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신성중 편집인:오택희 편집국장:조선근

교구별 목요기도회,

다함께 합심해 기도하는 교회

충현기도원에서, 3월 11일 1교구 시작으로

교회는 '다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뿐 아니라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빛된 생활을 하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함이 절박한 때이기에 온 교회가 다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금년은 우리 교회설립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일을 생각할 뿐 아니라, 개인의 영적 각성과 성장을 위하여, 자선에게 허락된 직분을 힘다해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나라가 되기 위해, 교구와 교회의 배가 부흥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 교구별 목요기도회로 모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온 교구 식구가 참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회에서도 차량지원을 하며 교회본당 앞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하게 된다. (교구의 신청에 따라 교구 지역 지정장소에서 출발할 수 있다) 매주 목요일 충현기도원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기도회로 모이는데 함께 기도회로 모이고 개인 기도의 시간도 허락하여 합심기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배울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진행 계획 및 교구별 기도회 날짜는 다음과 같다.

1. 진행계획

10:00 - 11:00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10:00 - 12:00 집회 및 기도회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또는 14:30) 교구 부흥과 개인 영성훈련을 위한 시간
14:00 - 15:00 기도원에서 교회로 (교구 계획에 따라 저녁에 할 수도 있다)

2. 교구별 기도회 일자

3월 11일 - 1교구	3월 18일 - 2교구
3월 25일 - 3교구	4월 1일 - 4교구
4월 8일 - 5교구	4월 15일 - 6교구
4월 22일 - 7교구	4월 29일 - 8교구
5월 6일 - 9교구	5월 13일 - 10교구
5월 20일 - 11교구	6월 3일 - 12교구
6월 10일 - 13교구	6월 17일 - 14교구
6월 24일 - 15교구	7월 1일 - 16교구
7월 8일 - 17교구	9월 2일 - 18교구
9월 9일 - 19교구	9월 16일 - 20교구
9월 23일 - 21교구	10월 7일 - 22교구
10월 14일 - 23교구	

봉사관 헌당 예배

3월 10일(수), 12시, 봉사관에서

2년여에 걸친 공사를 마무리 짓고 봉사관이 헌당됐다. 지난 3월 10일(수) 12시 원로장로, 당회원, 교역자 및 지역관계자들과 많은 교우들이 봉사관 지하1층 가나홀을 가득 메운 가운데 헌당예배를 드렸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장애인들을 위한 집으로 활용될 봉사관은 지상2층, 지하 3층으로 건축 연면적이 875.8평인데 주일에는 교회학교 집회장소로 이용될 계획이다. 교회는 봉사관을 완공하며 각층마다 명칭을 부여했고, 각종 사용 계획을 발표했다.

위층	명칭	사용부서 및 사용시간
지하1층	가나홀	08:30-12:00(고등부), 14:10-14:40(교구모임)
지하2층	마르다홀	13:00-14:00(대학부), 14:10-14:40(교구모임)
지하3층	요사홀	13:00-16:30(창년2부)
지상1층	베데스다홀	13:00-14:00(대학부)
지상2층	엠메오홀	14:30-16:00(대학부)

한편 봉사관 완공에 따라 교회 전체의 장소 사용이 일부 변경됐다. 선교관 2층에 있던 도서관이 선교관 4층으로, 선교관 1층에 있던 교역자실이 선교관 2층으로, 영아부가 선교관 102, 103호실로 각각 옮겨졌다.

교구별 모임 장소 변경

봉사관이 완공되어 주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구별 모임 장소가 전면적으로 재 조정됐다. 다음 주일(3월 21일)부터 시행될 교구별 모임 장소는 아래와 같다.

1교구 / 찬양대석 2교구/교육관 212호
3교구 / 교육관 414호 4교구 교육관107호
5교구 / 아덴홀 6교구 / 할렐루야홀
7교구 / 교육관 202호 8교구/봉사관 지하1층
9교구/ 교육관 314호 10교구/교육관 301호
11교구/봉사관 지하2층12교구 / 본당(중앙)
13교구 / 갈렐리홀 14교구 / 엠마누엘홀
15교구/ 선교관 102호 16교구 / 본당(우측)
17교구 / 교육관 205호18교구 / 교육관 307호
19교구 / 본당(좌측) 20교구/ 교육관 407호
21교구 / 베델홀 22교구 / 핸드벨석
23교구 / 베다니홀

봉사관에 피아노 기증

봉사관 완공에 따라 봉사관 각 집회실에서 사용할 피아노를 기증한 성도들이 있다. 13교구의 도수자 집사가 1대, 2교구의 전주하, 이 단 생도가 1대, 2교구의 신선길, 예영숙 성도가 1대를 각각 기증하여 봉사관에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봉사관 문 열다

2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된 봉사관이 지난 3월 10일(수), 12시에 헌당예배를 드림으로 문을 활짝 열고 지역사회와 장애인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게 되었고 주일에는 교회학교 및 각 지회 집회 및 회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

· 3월 15일~17일, 송탄남부교회 부흥회 인도

2. 당회장 신성중 목사

· 목회자 세미나 특강(매주 월)
· 3월 16일, 군목후보생 특강 및 설교 (본교회 당회실에서)

는 동남안 지역과 나아가 대중국 및 북방 선교의 전초기지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홍콩 충현교회 설립예배

선교위원회는 지난 3월1일 홍콩 충현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연이어 3월 2일~3일까지 기념부흥회를 은혜가운데 드렸다. 이번 설립예배에는 주 홍콩 대사 및 각계 각층의 유력 인사가 참석 그 자리를 더욱 빛내었고 특히 본교회에서 당회장 목사를 비롯한 방문단이 참석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돌린 귀한 시간이 되었다.

설립예배 및 기념 부흥회의 주강사로 본 교회 당회장 신성중 목사와 그리고 새벽예배의 주강사로 김양호 목사가었고 낮시간에 진행된 선교부흥회에는 김은태 선교사 및 C.C.C 홍콩 주재 선교사인 최복기 간사 그리고 OMF 선교사 및 대북방 선교사역을 담당하는 정○○ 선교사등 다방면의 강사들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교회사켰다.

그동안 본교회 선교사로 홍콩에서 활동하는 김은태 선교사의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홍콩 충현교회가 설립예배를 드리게 됨으로써 본 교회





승리의 찬송

(시 68:19-27)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시 68:19, 20)

김 창 인

<목사·원로목사>



시편 68편 말씀의 저자는 다윗왕이며 그가 처한 환경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1.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은 그때그때 상으로 보상되거나 죄를 범한 것은 그때그때 벌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이 쌓여진 것만큼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으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뽑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뽑으실 때에는 마치 노아 시대에 홍수가 온 인류를 잠가버리듯이 파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될 때에는 만민중에 기뻐하는 자와 슬퍼하는 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의를 위하여 억울함을 당했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흰 옷 입고 기쁨을 가득 채운 등불에 불켜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지만, 원수들에게는 “인덕아 나를 가리워라 산아 나를 덮으라” 하는 형용할 수 없는 비극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신자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닦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문둥이가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2. 조상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담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상때부터 하나님이 베푸시던 모든 은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 만나로 광야에서 먹여주시던 것,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던 것,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때려 눕히시던 것, 조상들이 받은 그 은혜를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하라는 말씀을 7월부터 18월에서 하셨습니다.

3.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째 복은 날마다 우리들의 짐을 해결해주시는 복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들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시 68:19)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래저래 인간의 짐이 많은데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짐을 저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짐을 해결해주시는 분은 권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여야 됩니다. 권능이 있는 분이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시고 풍랑 쫓아 복종케 하시는 내 주 앞에 빙니다”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권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여야 “네 병이 나을지어다. 악마야 물러가라! “바다야 바람아 잔잔해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는 분. 또 누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시 수 있습니까? 부자라야 해결합니다. 우리들은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만 하면 구원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권세 능력 무한하신 분!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이신 부자! 그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짐을 해결해주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만물을 가져 주셨고 죄를 범한 우리들이 회개만 하면 용서해주시는. 육백년이 넘는 죄를 범한 니느웨성의 죄를 사할 동안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큼니다. 니느웨의 임금으로부터 어른들이 회개하니 어린이가 12만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어주십니다. 평생 살인강도질 하던 악한 강도가 사형집행 받을 십자가 형틀에서 회개하니 예수님이 용서해주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낙원에 나와같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짐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해결해주시는.

다윗은 어려서부터 왕이된 지금까지 날마다 일마다 해결해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했는데 지나놓고보니 하나님의 기적을 본 기쁨이 남았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짐을 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둘째 복은 승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서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시 68:21)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짐을 만들어주던 악마들을 정리하시고 처리하십니다. 그 원

수들의 정수리를 쳐서 깨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의 원수인 장수들을 하나님이 때려 눕히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네 원수에게서 분깃을 얻게 하시리로다”(시 68:22) 바산이라는 곳은 정글입니다. 원수들이 바산으로 도망가고 또 깊은 바다에 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끌어내서 처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원수를 이기는 승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셋째 복은 성전에 올라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동녀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시 68:24)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 감사 찬송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갖은 악기가 다 동원됩니다. 전쟁에 졌다면 여자들은 숨어 있을 것인데 승리하였기 때문에 소고를 치면서 나옵니다. 승리를 얻은 자는 숨지 않고 마음껏 찬미를 부릅니다. 우리들은 ‘할렐루야!’를 부르며 흰 옷입고 영광 속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때에 원수들은 “인덕아, 산아, 나를 가리워라.” 하며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들이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시 68:26) 누가 하나님께 찬송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온 자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 찬송을 못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4. 승리의 찬송

“네 하나님이 네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발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시 68 :28) 이 구절에서 갈발의 들짐승이라는 것은 애굽의 바로왕을 말합니다. 애굽의 나일강이 갈발입니다. 또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라고 했는데 수소라는 것은 여러 나라의 임금들을 의미하고 만민의 송아지라는 말은 각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8절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짐을 해결해주시는 복을 받고 승리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렸더니 온 세계가 다 무릎꿇고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나라가 꼭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짐을 날마다 저주시는 하나님만 바로 믿고 기쁘게 섬김으로 승리하고, 승리한 다음에 교만이 없고 사치가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으실만한 예배를 바로 드리면 온 세계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나라는 온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모든 짐을 날마다 저주시는 하나님만 바로 믿고 기쁘게 섬김으로 승리하고, 승리한 다음에 교만이 없고 사치가 없이 감사의 찬송을 부른 다윗은 계속해서 다음과같이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시 68:31)

원컨대 시편 68편의 복이 우리 나라의 모든 성도와 교회와 국민들에게 임하여서 우리 나라의 모든 어려운 짐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셔서, 한국의 교회가 똑바로 회개하고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십일조를 똑바로 바치고 거룩한 주일을 똑바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돌릴 때에, 온 세계가 한국에 와서 은혜받는 세계를 복음화 하는 한국 교회가 되고 한국 민족이 되기를 높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

세상의 모든 것은 입장에 따라, 그 보는 시선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보인다.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보이고, 한 쪽 발을 들고 삐딱하게 보면 세상 만사가 다 삐딱하게 보인다. 그러나 똑 바로 서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똑바로 보인다. 그러기에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 신앙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으로 알고 참고 기다린다. 그러나 같은 교인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는 상대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시선이 다르다. 놀라운 것은 이 시선의 차이는 교양과 지식이나 직위의 차이에 관계없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글 / 신성종 목사

모든 아름다움에 눈뜨게 하신 주님

오 희 승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

하루의 시간이 연기처럼 흐느적거리다가
다시금 소리없이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신 주여!
반갑고 정다운 그 이름 내 아버지여!
모든 아름다움에 눈뜨게 하기 위해
내 육신의 연약함이 필요했음을 깨닫게 해 주신
당신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나이다
순간순간 치솟았던 내 슬픔과 절망을
주여 용서하소서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주여
당신의 고통과 인내와 그 따스했던 미소가 하나되어서
스스로 내게 주님의 드락을 내려 보십니다.
주여!
내 마음 속에 담아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 내어
서랍을 털듯이 후련하게 진부를 새롭게 정돈하게 하소서
성처받은 자의 슬픔을 알게 하시고
우리네들을 치유케 하시는 주님
참으로 거부 당해도 화가 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독하게 짓밟히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가슴에 두지 않으며 쉽게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 앞에서
행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다려도 기다려도 집착치 않으며
과정을 아름답게 포용하는 마음 안에서
행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직도 자신은 사랑을 베풀기에 모자란다는
겸손을 지닌 마음을 갖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서 주신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
새롭고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하신
당신의 숨은 뜻을 제가 이제 알겠나이다.
이제는 진실로
저로 하여금 청아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픈 이의 걱정과 고뇌를 잊게하는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거듭거듭 주께 감사하나이다.

한

국교회의 성장은 세계교회가 부러
워합니다. 세계 50대 교회중에 20
개 이상이 한국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
까요? 그 성장
의 비결은 무
엇 일까요? 그
궁금증은 개교
회를 돌아보



“어린이 기도문”

깨울 빛을 지음 · 이병각 옮김
국판 · 154면 · 푸른초창 발행 · 5500원

한 용 관

(초등6부지도, 15교구지도)

하나의 협박으
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본서는 맑고
투명한 어린이
들의 기도 세계
를 소개하고 어

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벽에 이
루어 집니다. 매일 새벽기도회가 그 힘의
원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이고 한국
교회의 힘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른들
의 전유물인가? 물론 기도는 어른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도 기도해야 합
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로 성장했다면 한국
교회의 장래는 기도하는 어린이들에게 달
려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른 기도의 훈
련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 합니까? 어린이들에
게 그들의 심성에 적합한 기도를 가르칩니

다. 어린이들의 다양한 기도 영역을 알려 주
니다. 어린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쉽고 자연
스러운 것인지를 접하게 합니다. 본서는
주제별, 절기별로 잘 정리된 어린이 기도
서로서 한국에서는 유일한 본격 “어린이
기도문”이라 생각됩니다. 본서를 번역한
이병각 목사(현 충청교회 대학부 지도)는
어린이들을 직접 가르칠 때에 어린이의 심
정으로 번역하셨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에게 감히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
다.

교맹이 이야기

꼬순아! 오늘 꼬맹이는 너무나 멋진
광경을 목격했어.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에 아
까워서 이렇게 너에게 이야기해 주련다. 그
러니까, 꼬맹이는 오늘 주일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향하는 전철을 탔어. 정거장마다 스
피커 안내방송과 함께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보며 꽤 긴 시간을 전철에서 무료하게 보내
고 있었어.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는지 야님
출고 있는 건지 몰라도 전철안은 너무나 조
용했어. 그때였어. 그 적막을 깨뜨리고 저쪽
끝에서 어린 아이의 창열대는 소리가 났던
거야.

“엄마야~ 나 급해. 쉬~”

“조금만 참아. 곧 있으면 내릴 거니깐. 착
하지 우리 현중이”

“아~ 엄마 나 정말 못참겠어요.”

꼬맹이는 그 어린 아이가 귀엽기도 하고 상
황이 아주 재미있기도 해서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겨우 참아가며 흥미있는 눈길로 그

아이와 아주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 근
데 꼬순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니?

더이상 아이의 인내심에 한계가 온걸 아
셨는지 아주머니께서 자신의 구두를 짝 벗으
시더니 “자~ 현중아, 여기도 쉬하자. 쉬~”
하시는 것이 아니야? 아~ 정말 놀랐어. 꼬
맹이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무관심하던 사람
들도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
라보았지. 꼬맹이는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어. 내가 저 아주머니의 상황
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부끄러운 일이
지만 어쩔 난 아이를 저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보게 했을런지도 몰라. 아무리 생
각해 보아도 그 아주머니같은 행동을 했을
것 같진 않았어. “이번 역은 신도림입니다”
안내 방송과 함께 문이 열리자 한손에는 넘
칠까 아슬아슬한 구두를 들고 다른 한손엔
너무너무 시원하다는 듯이 싱글벙글 웃는 아
이의 손을 잡고 아주머니는 나가셨어. 꼬맹
이는 아주머니를 향해 힘찬 박수를 보냈어.

(교회학교 고등부 주모에서)

♣ 살며 생각하며 ♣

“부부 사랑찾기”

박 중 헌

(집사, 11교구)



오래전만에 맞이한 3월 1일의 공
휴일은 우리 충현 베드로 11전
도회원에게는 부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복
된 하루가 되었다.

충현가도원에서 가정울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3부로 나누
어 진행된 부부 신앙 세미나는 15쌍이 참
석한 가운데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주제
성구로 찬송 305장을 주제 찬송으로 이루
어졌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
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분
복이니라”는 말씀 아래 “부부를 향한 하
남의 계획”이라는 제목의 강연은 우리 모
두에게 하나님의 부부에 대한 사랑이 얼

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
닫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사
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예
우리를 참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내용의
찬양을 통해 믿음의 부부가 가져야 하는
사랑의 길을 다시한 번 확인 할 수 있었
다.

제2부에서 가졌던 상대방의 장점 20개
제 발표회와 사랑의 편지 쓰기는 곧 기쁨
과 감동의 화노라파였다. 전형적인 한국

가정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벌
어진 것이다. 아내의 남편사랑은 흔하들
있어왔으나, 남편의 아내사랑은 쉽게 말
하기 어려운 일이라던 나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 편견이었다. 이날만은 어쩌나 남
편들의 아내사랑이 수다(?) 스러운지 서로
가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
의 가족만이 가질 수 있고 또다른 우리들
만의 자랑거리라 생각되었다. 특히 대부
분의 남편은 아내의 믿음에 더 크고 헌신
적이라 하였으며, 아내들은 오해려 남편
의 믿음에 이제는 더 크게 늘 서있다고 하
였다. 다음으로 이어진 사랑의 편지쓰기
는 또 다른 한편의 멜로드라마였다. 특히
남편들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읽는 아
내들의 복받쳐오르는 기쁨의 눈물은 참석
자들의 마음을 뭉클케 하였다.

이날 부부 신앙 세미나는 한편으로는
서로의 부족함과 잘못을 뒤우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깊은 사랑을 다음
같이 발견하고, 앞으로 믿음 가운데서 영

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하는 “사랑
선언 대회”가 되었다고 하겠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루어진 제3
부는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크신 사
랑의 계획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시간으
로 이루어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모
든 부부들은 손과 손을 맞잡고 “사랑은 모
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영
원토록 변함없네”의 찬양과 “육신도 없애
애두운 세상 배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소서”라는 찬양을 부
르며 우리 모든 믿음의 부부들이 이 혼탁
해고 애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로 약속하였다.

끝으로 우리들의 이러한 “부부 사랑
찾기”의 부부신앙세미나가 충현 교회의
모든 지역에도 확산되어 “부부 사랑”의 교
회로 성장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다.

이날만은 어쩌나 남편들의 아내사랑이 수다(?) 스러운지 서로가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족만이 가질 수 있고 또다른 우리들만의 자랑거리라 생각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남편은 아내의 믿음에 더 크고 헌신적이라 하였으며,
아내들은 오해려 남편의 믿음에 이제는 더 크게 늘 서있다고 하였다.

토막소식

◆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이종석 장로)는 93년 책의 해를 맞으며 책읽기 운동을 전개, 자신이 본 책중 좋은 책을 대원들을 위해 내어놓고 원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이 빌려볼 수 있게 하고 있다.

◆ 영아부(부장 정광호 장로)는 3월 한달을 학생대심방의 날로 정하고 학생심방을 실시한다. 3월 21은 반별 주기도문대회를 연다.

◆ 유치부(부장 박인세 장로)는 3월 한달을 학생대심방의 날로 정하고 28일을 자제사무집회를 할 예정이다.

◆ 초등1부(부장 김광남 장로)는 다음주일 학동, 논현동 네거리에서 교사들이 노방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 초등3부(부장 김여순 장로)는 3월 한달을 재적인원 100% 출석의 달로 정하고 각반 담임 교사들이 열심을 내고 있다. 또한 3월 21일을 어린이 헌신예배 주일로 정했다. 사회, 기도, 안내위원 헌금위원 등을 모두 어린이들이 담당하게 된다.

◆ 초등4부(부장 윤광일 장로)는 지난 2월 28일 주일에는 글짓기 대회를 지난 3월 7일에는 성경암송대회를 자체 실시했다.

◆ 초등6부(부장 이창호 장로)는 3월부터 안드레 전도운동을 실시한다. 주남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부터 시작한다.

◆ 중등1부(부장 최무길 장로)는 3월 21일, 지난 2월중 실시한 학생 전체 심방에 대한 심방보고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 중등2부(부장 박영식 장로)는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매 주일 각 과별 예선전을 치루느라고 분주하다. 각 과별로 3-4팀이 예선전에서 선발될 예정이다.

새봄과 함께 새학기 시작

새봄을 맞으며 성경공부, 전도대, 세미나, 유치원등 새학기가 일제히 개강, 개학하면서 교회는 새로운 활기로 가득차고 있다. 주간 성경공부와 찬양대원, 교사양성부가 지난 3월 6일(토)에 목회자 세미나가 3월 8일(월)에, 총현전도대가 3월 10일(수)에 각각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새학기를 시작했다.

개강일 현재로 살펴볼 때 주간성경공부에 395명, 교사양성부에 114명, 찬양대원양성부에 20명이 신청했고, 목회자 세미나 첫날에는 671명이 접수됐으며 총현전도대에는

◆ 장년1부(부장 정운석 장로)는 3월 14일 오후 12시 30분 장년 1부실(교육관 407호)에서 '믿음'이란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강사는 전도위원회 지도인 임성환 목사

◆ 장년2부(부장 이하영 장로)와 장년4부(부장 강순용 장로)는 3월 28일 반별로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갖고 반원들 간의 친교를 더욱 다지기로 하였다.

◆ 소망부(부장 마성락 장로)는 3월 21일 각 과별로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한다. 지정곡과 자유곡 각 1장씩.

◆ 새가정부(부장 김재균 장로)는 3월 28일 주일에 '성경암송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범위는 요한복음 1장 1-14절이다.

◆ 에바다부(부장 조인제 장로)는 3월 한달을 대심방의 달로 정하고 전 교사가 학생심방에 열심이다.

◆ 제 5교구(교구장 김광남 장로)는 지난 주일 교회당에서 5교구 전가족 동원 친교 모임을 가지고 5교구 소속 전 인원이 모여 서로를 알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의 모임을 가졌다.



◆ 선교위원회(위원장 하대선 장로)는 오는 8월 3일에서 9일까지 있을 제2회 한일기독교청년미래지도자 대회 실무모임을 위하여 지난 3월 5일-7일 까지 회의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다. 오는 제2회 한일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 대회를 위해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한다.

127명이 지원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10주, 16주등의 과정 동안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대학부, 21일 '예수사랑 봄잔치'

대학부는 오는 주일(21일) 자체 '예수사랑 봄잔치'를 열고 교회 내에 대학부에 소속된 대학생들과 교회 밖에서 주남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예수사랑 봄잔치'를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연다. 한 사람이 한 명씩 인도하는 금번 잔치에 대학부는 600여명이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1일 오후 1시 30분 갈릴리홀에서 모일 예정이다.

서 겨울성경학교를 마쳤다.

특기할만한 것은 방배동에서 치과의를 하고 있는 홍이표 집사(15교구)가 학생들에게 치과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봉사를 해주었다. (총 7명이 치료받았음). 또한 그날 참석해 20여명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간담회에도 시간을 가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하나되어 올바른 교육과 사랑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며 평온구원과 사랑실현에 대하여 진지한 대화를 가질 수 있었다.



사랑 중에 마친 사랑부 겨울수련회

사랑부(부장 송환왕 장로, 지도 임성환 목사)와 제5회 겨울성경학교가 지난 3월 1일 교육관 107호실에서 교사 90명, 보조교사 30명, 학생 119명 제 239명이 참가한 가운데 은혜중에 진행되었다.

정상에 배하여 정신과 건강면에서 뒤떨어진 이들 학생은 긴 시간을 견디기가 무척 어려웠지만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성경이야기를 비롯한 율동과 찬양시간을 가짐으로써 해를 마음껏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대우에 행하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 마당에서 가건 게 앞에는 좀 더 놀이시간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등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면모를 보여 기도 하면서 애대중 속에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소서
김창인 목사님 : 3월 15일-17일 송탄 남부교회 부흥회 인도
신성종 목사님 : 3월 16일 군목 후보생 특강 및 설교
매주 월요일 목회자 세미나 로마서 강해
2.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하여 주소서
3. 교육 받고 있는 피택 안수집사님과 피택 권사님 위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소서
4. 미주 선교 찬양대의 연습과 준비 과정 위에 함께하여 주소서

93년도 상반기 장학금 지급

총 81명에게, 4천여만원

교회는 교회학교에 소속된 학생이나 신학원 구원에 다니며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993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확정하고 오늘 저녁(3월 14일) 찬양예배후 장학금 수여식을 갖기로 했다. 장학금은 총 81명으로 총 장학금액은 4천1백4십여만원에 이른다. 한편 교회는 강남구청에 의뢰된 10명도 '사랑의 장학금'으로 인정. 장학금을 전달했다. 각 종류별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소석 장학생(14명)

김덕은 홍문석 조현숙 강서기 허 준 김은숙 임영호 정문지 이하늘 염범석 최경아 안복남 이종희 윤정훈

2. 총현장학생(61명)

유재덕 김성곤 백의현 김준택 김필수 정갑신 이준우 김철성 황원상 김희영 박세준 안설희 임채석 이은례 박태진 이기엽 마상찬 정미애 Raja 추명희 김희석 배지은 박선정 정상미 김수영 이도연 엄혜선 임성이 홍준석 왕승원 김지훈 문선웅 남문희 박동석 최면섭 이민욱 강선미 구혜경 신병철 박준영 김봉선 임필아 김수희 김영민 안의정 박두협 김은주 지효진 오인석 조혜영 최철훈 이은정 김요셉 유 철 황지훈 김환홍 이하나 신미라 강석천 이희영 임우영

3. 위탁장학생(6명)

김신영 정영미 김경성 김운성 장만정 김지영

장우천 강도사 부임

김창수 목사가 수리남의 안석렬선교사 안식년기간 중 사역을 위해 나가게 됨에 따라 공석이 된 청년2부 지도 교역자로 장우천 강도사(40세)가 부임했다. 장 강도사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주 뉴욕교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10여년동안 미국생활에서 교국에서 일하고 싶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락하셨다고 기뻐하며 말로만 듣던 총현교회에 와서 보니 우선 규모에서 어리둥절해 진다고 앞으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다고 한다. 모친과 원정순 사모와 함께 최

근에 수서지구 아파트로 옮겼다.

신규임명 및 이동, 사임

가브리엘찬양대에서 반주하던 채은실 선생이 호산나찬양대 반주자로 옮기고, 가브리엘 찬양대에는 송영미 선생(33세)이 새로 임명됐다. 송선생은 이대 음대를 졸업하고 미국 남침례신학교에서 교회음악박사학위를 받았다. 한편 그동안 실로암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를 지휘하던 김영준 집사는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만 하기로 하고, 조신욱 선생이 실로암찬양대의 지휘로 왔다. 한편 그동안 부목사로 있던 김태준 목사가 교회임지 이동관계로 우리 교회를 사임했다.

제4차 총현올림픽

표어 공모 및 피켓걸 공개모집

오는 5월 28일(금) 정신여고 운동장에서 개최될 제4차 총현올림픽의 전교인 참석 및 출전사기 양양을 위하여 표어를 공모하며, 당일 행사의 진행 질서를 뜻깊게 장식하기 위하여 피켓걸을 공개 모집한다.

1. 표어공모

- 내용 / 간단 명료하면서도 제4차 총현 올림픽 목적에 부응한 함축적 의미를 부여하여 한다.
- 표어발 수 제한 / 10자 이내로 최대 3행으로 할 것
- 공모기간 / 3월 29일(월)까지 총현올림픽 조직위원회(선교관 3(5호))
- 당선작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주고, 올림피, 표어로 사용한다.

2. 피켓걸 공개모집

- 제작 /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용도가 단정한 재(비닐)
- ② 신장 1650mm이상인 자
- 전형방법 / ① 1차 : 사진 (얼굴중심 명함판 1매, 전신사진 1매(정면))
- ② 2차 : 실물 면접
- 사진접수마감 / 4월 4일까지 (교구 추천도 가능)
- 채용된 피켓걸은 제4차 총현올림픽 행사의 전도 피켓걸로 대우하며, 소정의 기념품을 준다
- 사진 뒷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교구명 표시할 것

주최: 1993년 3월 14일

제4차 총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유 기 전 장로